

# 향토기업 지역 재투자 선순환 모델 구축

###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창 소재 식품 선도기업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찾아 현장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식품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추진을 통해 향토기업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8일 고창 소재 식품 선도기업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김종학)을 찾아 기업 관계자, 지원기관 등과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002년 설립된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어류와 육류로 간편식을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도의 경영개선지원, 가공설비구입 지원 등을 받아 식품 제조,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키워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업은 전북 서남권의 대표적인 향토 식품기업으로 1공장부터 5공장까지 모두 도내에 자리를 잡아 지역 내 재투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8일 고창 소재 식품 선도기업인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을 찾아 기업 관계자, 지원기관 등과 식품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자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4년 완공된 제2공장은 동부

권인 일실에 자리를 잡아 도내 농수산물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훈 부지사를 비롯해 나철주 고창 농어촌산업육성과 식품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이은미 전북바이오통합산업진흥원장도 함께 해 자동화 요구도 증가, 인력난 등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식품 공정이 복잡하고 인력이 과다 소모되는 영세 식품업체 특성상 날로 심화하는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출범한 산·학·연·관 협업 네트워크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스마트 제조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식품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최근 동김제농협 로컬푸드통합물류센터 내 농산물 전처리시설에서 '예담채 샐러드' 첫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 전북농협, '예담채 샐러드' 첫 출시

### 수출·온라인 등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은 전북 관내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신선·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예담채 샐러드'를 처음 출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간편식 트렌드 확산에 따른 샐러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북 관내 청년농 및 스마트팜 농가들의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예담채 샐러드는 전북 관내 우수 청년농 및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유럽형 상추를 활

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재배를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안정적인 일일 공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수경재배방식을 활용해 채소 원물의 신선도를 한층 높여준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설·HACCP)을 획득한 동김제농협 로컬푸드통합물류센터 내 샐러드 가공라인에서 만들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청년농 및 스마트팜 농가 조취화를 통해 전북 관내 생산자조직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술 지원·해외시장 진출 도울 것"

### 농진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 17일 전남 화순 파프리카 신품종 생산 농가 방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지난 17일 전남 화순군 수출용 파프리카 신품종 생산 현장을 찾아 기술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황용 국장은 일본에 편종된 파프리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외국산 파프리카 종자를 국산 신품종으로 대체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 농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은 국산 종자를 사용함으로써 비용은 절감되지만, 파프리카 신품종 검증, 안정생산 재배 지침(매뉴얼) 마련, 판로 확보가 뒤따라야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 조건(채광 등) 악화 등으로 파프리카 생육이 불안정해지면 서 수확량이 줄어 파프리카 생산 농가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기술지원에 농진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업해 겨울과 여름 작기 파프리카 신품종의 지역적응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배 지침서를 개발하고 현장 교육을 추진해 파프리카 신품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물 수출에 도전하는 농가들의



농촌진흥청 김황용 기술협력국장은 지난 17일 전남 화순군 수출용 파프리카 신품종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한국식품연구원, 美 일리노이대 연구실 설치... 한-미 공동연구 활성화·국제협력 가속

식품연구개발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을 보유한 일리노이대학교의 정밀발효 분야 On-Site Lab(현지거점연구실)이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에 설치됐다고 18일 밝혔다.

On-Site Lab은 식품연에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식품 R&D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과 실질적인 연구 협력, 인력교류 등을 위해 상호(식품연 및 상대기관) 현장에 거점연구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에 식품연에 설치된 일리노이대 정밀발효 연구실(진용수 교수)은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미생물의 유전체 재설계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해 내는 정밀발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연구실적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연은 이번 일리노이대(식품공학)의 On-Site Lab 설치를 시작으로 향후 하와이대(식품공학), 퍼듀대(인체영양), 오리건주립대(식품안전)의 On-Site Lab도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식품연구개발에 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을 보유한 일리노이대학교의 정밀발효분야 현지거점연구실이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 경진원, 2024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함께 운영하는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똑딱365'에서 2024 전북 메이커톤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메이커톤 경진대회는 지역 메이커 제조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대회이며, 모집기간은 지난 17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다.

대회 주제는 제조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제작이며,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7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비,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및 공간 활용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제작된 시제품은 최종평가를 거쳐 순위별 우수 시제품을 대상(1팀),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 선정하며, 총850만원 상당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3인 이하의 팀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는 7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똑딱365 홈페이지(www.maker365.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19-359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영등생활권 마지막 민간 아파트로 수요자 '관심'

HDC현대산업개발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서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익산시의 첫 번째 아이파크이자 영등생활권의 마지막 민간분양 아파트여서 익산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들어서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119세대 △104㎡ 158세대 △123㎡ 40세대다.

청약일정은 4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 2일 1순위, 5월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 계약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익산시는 비투기와 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

이 없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전용면적 104㎡와 123㎡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이 가능하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 ▲주거 선호도 높은 영등생활권, 학세권 위치에 개발호재까지 풍부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에 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에 위치해 대형마트와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익산점), 롯데마트(익산점), CGV 익산, 익산종합병원, 익산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도보 거리에는 공동초, 어양중, 부송도서관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는 영등생활권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익산 내에서도 학교와 학원을 아우르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지역 내외로 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양로, 선화로 등을 이용해 익산 시내 이용이 자유롭고 KTX·SRT익산역, 익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익산IC 등을 통해 인근 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HDC현대산업개발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 30일 특별공급, 내달 2일 1순위·3일 2순위 청약 접수 코스트코(예정) 입점 호재까지... 최첨단 시스템 적용

단지 동쪽으로는 약 80만㎡ 규모의 팔봉근린공원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공원 내에는 다양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놀이터), 운동시설, 교양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단지 가까이에서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스트코(예정)' 입점 추진에 따른 호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익산시청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와 코스트코는 입점 부지에 대해 협의 중인 상황이다.

### ▲익산 내 첫 번째 아이파크 공급... 아이파크만의 브랜드 '프리미

엄' 기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익산 부송 아이파크'는 익산시에 공급되는 첫 번째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로서, 다양한 특화설계가 집약돼 한층 높은 주거 편의성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될 계획이다.

전체적인 컬러는 화이트와 베이지를 주조색으로 적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실재를 연출했으며, 공급되는 모든 면적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등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또,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실내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무상의 다양한 옵션 품목을 제공한다. 용적률 199%, 건폐율 14%의 쾌적한

단지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넓은 동간 거리를 갖춰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으며, 조정 면적은 전체의 약 36%에 달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가 될 전망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지 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한 조정설계 역시 눈에 띈다. 주문주, 상가와 연계된 단정하고 모던한 경관 조정설계를 비롯해 단지 대표 커뮤니티 광장인 다이나믹 파크, 웰컴가든, 오크가든, 팔가든 등이 그 예다. 특히 다이나믹 파크는 야외 미술관 콘셉트로 티하우스, 산책로, 워터오브제 등이 조성돼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라운지, 프라이빗 독서실, 시니어 라운지, 키

즈 스테이션,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조성돼 여가생활의 편의성과 쾌적함을 높인다.

각종 특화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의 주거문화를 앞서 경험할 수 있다. 보안 시스템으로는 안면인식 시스템(공동현관, 세대현관), 차량 통제 시스템, 원격감침 및 무인택배 시스템, 단지 내 CCTV, 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으로는 스마트 LED 감성조명, 주차장 LED 조명 시스템, 거실 무선 AP 일체형 공기질 측정 센서(보일러 확장 시), 놀이터 미세먼지 농도 표시 일체형 보안등, 거실 월패드, 통합스위치(각실), 스마트 스위치(현관)가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으로는 Push & Pull 타입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록, 주차유도 시스템, 방문차량 예약등록 시스템, 자동 주차위치 등록 시스템, 빈 주차공간 알림 등이 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등생활권에 공급되는 익산시의 첫 아이파크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남다른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657-18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익산=이재훈 기자